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 길 모색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5월 17~18일 동국대에 모여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를 주제로 2008년 제 4회 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이명래, 이하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라는 대주제처럼 국내 및 미국 · 일본 · 티베트 · 캄보디아 등 20여개국 160여명의 저명 및 신진 불교학자들이 10개 분과로 나눠 각각의 연구를 발표하고 점검해 불교학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이번 결집대회에 처음 시도된 홈스테이는 물론 결집대회 후 18~19일 일정사에서 열린 문화탐방에도 외국 학자 대부분이 함께해 호응을 얻었다. 500여명이 함께한 이번 결집대회의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 해외 불교학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비하라'를 제창한 불교 호스피스의 권위자 타미야 마사시 교수, 대승불교 권위자인 사사키 시즈카 교수, 화엄학 연구 권위자인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 아오키 코쇼 교수 등 한국 학자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한국불교학>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결집대회 자료집에 기타 학회 관계자들은 불만소리를 했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목차 안내조차 부실한 자료집에 많은 참석자들이 불편해했다. 통역과 자료집 부실로 대회장 곳곳에서는 160여 해외학자들의 불편함이 목격됐다.

교계 학회 한 관계자는 "학술대회 준비 · 진행과정이 백서 등으로 전달되지 않고 개인의 노하우로 넘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자료는 디지털 시대, IT강국에 맞게 대회장에서 무선인터넷 등으로 다운로드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집대회는 지역 및 주제별 인도불교,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의 지역별 5개 분과와 선불교, 불교사학, 요가 및 불교명상, 불교예술, 응용불교의 5개분과, 총 10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과별 주요 논문을 소개한다.

제1분과 '인도불교'에서는 우

제선 교수(동국대)가 인도 후기유가행파의 증지의 증득을 통해 돈오돈수와 점오점수를 조명한 '돈오돈수와 점오점수'를 발표했다. 우 교수는 ▲사상체와 같은 분별된 것이 어떻게 수습을 통해 지(知)에 선명히 현현되는가 ▲분별된 것을 인식대상으로 갖는 증지가 어떻게 무분별지인가 ▲찰나멸하는 마음이 어떻게 동일 대상에 대해 지식적으로 참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수행자는 어떻게 지에 특수한 속성을 개발할 수 있는가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 등을 여월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제와 의근과 의식, 증지 등으로 깨달음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에서는 세계적 여성 불교학자인 엘리스 핀들리 교수(미트리니티대)가 '라오스 승려들과 메타 담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핀들리 교수는 남아시아에서 상좌부승려들이 제자들과의 공동체에서 담마에 기초한 명상을 통해 에이즈에 대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핀들리 교수는 '메타 담마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상 · 고 · 무아를 통찰하는 명상 지도와 함께 오계 수지를 권하며, 자비희사를 실천해 일반인들과 같은 삶 속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제3분과 '중국불교'에서는 최

동순 연구원(연세대 국학연구원)이 '천태사상에 있어 심(心)'의 구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연구원은 "천태종의 종파성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담언이 활약했던 당나라 중기와 지혜가 활동했던 송나라 초기였다"면서 "천태종은 교판을 구성하는 불성론에 이어 실천으로 나가는 심의 구분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제4분과 '한국불교'에서는 고

영섭 교수(동국대)가 '한반도유한인교 불교생태학'을 발표해 여러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고 교수는 "불교생태학의 핵심지향은 상호존중의 지혜"라 밝혔다. 한반도 유한인교를 불교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고영섭 교수는 "불교생태학은 인간과 국토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소모적 논란보다 국민의 삶의 질적 성숙과 건강한 국토의 보전이라는 실용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분과 '일본불교'에서는 테

라오 이치 교수(미 미노부산대)가 '중세 백련종에 있어서 장송에 대하여'를 통해 '일본 불교 정착에 불교적 상징의례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의례 정비는 백련종 등 일본 선종의 의해 진행됐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6분과 '선불교'에서는 가이

뉴랜드 교수(미 센트럴 미시간대)가 '청정과 기쁨: 독신 탄트라 화파의 깨달음'을 통해 티베트 탄트라에 대해 소개했다. 뉴랜드 교수는 "티베트 불교 중 하나인 겐포파는 근본불교의 수행자적 정정성과 하나가 되려는 시도로 경전과 밀교 수행을 통합하려는 가르침"이라 설명했다. 그는 "모든 종교적 수행의 기본인 도덕적 청정성에 있다"고 강조해 티베트 불교가 한국 선종의 막힘막힘 등과 견해를 달리함을 피력했다.

티베트 탄트라의 색수업 요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범열에 관해 그는 "청정한 마음(법음)은 흔히 성행위를 통해 느끼지만 죽는 순간 혹은 사후에도 공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랜드 교수는 "밀교 수행이 다른 불교와 구분되는 점은 어떤 계율도 어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며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 속에 수행을 하는 것이 밀교 수행"이라 말했다.

중호 스님(동국대)은 '간화선의 용



각 지역 불교 역사 · 예술 생명 등 다양한 주제 10분과별 발표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성료...20여개국 160여 불교학자 열띤 토론

어 일고'에서 화두(話頭)의 두(頭)가 일반적인 접미사적 개념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님은 "화두의 '두'는 근본 현상을 말로 나타낸 것으로 할 · 방처럼 선의 핵심적 본질을 나타낸 것으로 근본세계를 뜻한다"고 말했다.

제7분과 '불교사'에서는 대승 불교 권위자인 사사키 시즈카 교수(미 미노부산대)가 '대비바사론' 연구의 의미'를 발표했다. 사사키 교수는 <대비바사론>의 특징을 ▲분량이 많아 교의상 정보량이 많은 점 ▲초기 아비달마가 <대비바사론>에 의해 체계화됨 ▲저술된 스타일이 한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불교계에 존재한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고 상세히 논한 점 ▲1500여개의 경전 인용과 3000여개의 출장 인용 등 다양한 문헌을 인용함에 또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 불교의 문헌학적 연구에 중요자료라는 점 ▲계통을 달리하는 <대비바사론>의 3개 한역본이 존재해 설립체유부 내부의 계통 상태를 알 수 있는 점으로 열거했다.

사사키 교수는 '구사론'은 법본 등이 발견돼 경이적으로 발전했으나 <대비바사론>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불교세계 최대의 철학적 성과인 <대비바사론>의 폭넓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8분과 '불교예술과 생명'에는 판 맹 스님이 '불교에서의 인간과 동물의 위상'에서 "동물들 통해 자비심을 발현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혜선 스님(한마음선원)은 "음악을 통한 포교"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스님은 "음악은 보편적 언어로 문화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한라음선원 합창단의 '선법가'의 기능과 효과를 정리했다. 선법가는 대행 스님의 계승에서 가사를 빌어 온 노래로 선에 대한 가르침의 노래를 뜻한다. 혜선 스님은 "찬불가보다 관조적인 음계의 형식과 마음을 반조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현대인의 수행 방법으로 좋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미야 마사시 교수(미 슈쿠도쿠대)는 '비하라의 계창과 전개'를 발표했다. 타미야 마사시 교수는 1950년대부터 '비하라' 용어를 만들어 주장한 인물 '비하라'는 불교 호스피스로 불교를 배경으로 한 터미널 케어시설의 호칭을 뜻한다. 그는 '비하라의 계창과 전개'에서 도입 초기의 종교는 포교를 위해 의료사업활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 제4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했다. 타미야 교수는 터미널케어의 불교적 수용이 '비하라'의 전개라 설명하며 "불교와 한자를 공유하는 한국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비하라불교 터미널케어를 통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제9분과 '요가 및 불교명상'에서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탈신화화'를 발표했다. 우희종 교수는 '부처님 당시에는 쉬웠던 가르침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증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기술)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쟁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주어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주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창종공고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호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호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호산

각 지역구 총무원장 임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중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시신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